

CREATION

TRUTH



Fuller 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ACT NEWS

Fuller 신학생 창조과학 집중 세미나

오는 1월 30일 - 2월 2일 나흘간 Fuller '1차 신학생 창조과학 집중 세미나'가 시작됩니다(장소: 파사데나 장로교회). 그동안 12번의 유학생 탐사여행과 2번의 신학생 탐사여행에 참석했던 신학생들은 창조과학이 성서 변증에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가를 인식해왔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이번 집중 세미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Fuller 신학교는 미국 내에 한국 신학생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가장 많이 출석하고 있는 학교입니다(800여명, 2009년 Fuller Seminary 현황 통계). 그런 면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래 한국과 이민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귀한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이를 위한 준비 간담회가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집중세미나는 그 중요성 때문에 그동안 탐사여행을 참석하셨던 각 교계 대표되는 목사님들께 추천을 부탁드렸는데, 교단을 막론하고 모두 적극적으로 추천하셨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각 목사님들의 추천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탐사여행

특별히 LA 사랑의 교회(담임목사 김기섭)와 충현선교교회(담임목사 민종기)에서 세미나 기간 동안 점심식사를 위한 특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12 동계 ITCM

2012년 동계 ITCM (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창조사역 집중훈련)이 오는 12월 23일부터 두 달 간 겨울방학 동안 진행됩니다. 지난 2011년 하계 ITCM에 이어 두 번째 단체 인턴쉽입니다. ITCM은 창조과학선교회가 진행하는 창조과학 사역의 가장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프로그램이며, 앞으로 창조과학 사역자 발굴과 육성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11 하계 ITCM의 성과로 이번 동계 ITCM도 창조과학 사역에 헌신하고자 하는 다음 세대가 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ITCM은 6명이 등록하였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탐사여행

지난 11월 7-10일 한국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처음으로 모집하여 탐사여행이 진행되었습니다. 바이블 칼리지에서는 앞으로 한 해 두 번씩 모집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4월 첫 주와 10월 마지막 주에 출발합니다.

KAPC 남가주 노회 빙하시대 탐사여행

지난 11월 14-16일 KAPC 남가주 노회(노회장 민종기) 목사님들께서 Death Valley를 중심으로 빙하시대 탐사여행을 참석하셨습니다. 노아 홍수에 이어서 발생한 빙하시대의 흔적들을 마치 퍼즐 조각 맞추듯이 진행되는 빙하시대 탐사여행을 통해 목사님들께서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과학적, 역사적 증거들을 확인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목사님 전원이 창조과학 사역의 중요성을 아시고, 내년 6월 말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탐사여행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200회를 넘기며 이어지는 창조과학 탐사여행

12월 마지막 주 Coffee Break 가족팀을 기점으로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200회를 맞이합니다. 2000년 2월 1차 출발로 시작된 탐사여행은 2008년 7월 100회를 넘겼고, 3년 반이 채 되기 전에 200회를 맞이하는 하계 됩니다. 벌써 2012년 탐사여행 예약이 30회에 이를 정도로 그 참여가 적극적이고 활발해졌습니다. 탐사여행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탐사여행을 인도할 견고한 사역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부창조과학학교 12기

시카고 지역의 창조과학학교 12기가 엑소더스교회 (담임목사 이철원; 847-208-9544, 385 S. Buffalo Grove Rd, Buffalo Grove, IL 60089)에서 2012년 4월 9일-6월 18일 10주간 (매월요일 저녁 7:50-9:50) 개강됩니다. 문의 및 신청: 이동용 박사(CreationBara@gmail.com) 나 884-537-5577 또는 847-845-5368로 연락바랍니다.

기도 부탁

창조과학선교회가 2012 년에도 하나님께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자들의 사역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겨울과 여름에 있는 8주간의 창조사역 집중훈련(ITCM)을 통해 좋은 일군들이 배출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하는 교회의 부흥과 개인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KAPC 남가주노회 빙하시대 탐사여행



봤다고 하는데?



조작으로 결론 난 로즈웰 외계인 해부사진

창조과학 세미나에서 자주 받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바로 UFO에 관한 질문이다. 영어로는 Unidentified Flying Object,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의미다. 최근에는 잦은 질문으로 인해 UFO를 주제로 하는 창조과학 세미나까지 인도하고 있다. 과연 UFO는 존재하는지,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허구인지, 또한 이들이 왜 최근에 이슈가 되는지... 앞으로 수회에 걸쳐서

이에 관해 비교적 상사하게 다루어볼 예정이다.

UFO 주제에 대하여 네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1)UFO를 본 사람이 있다는데 정말인가? 즉 증거적인(evidential) 부분이다. 2)UFO가 과학에서 비롯된 생각인가? 즉 과학적인(scientific) 부분이다. 3)우주의 창조가 기록된 성경에는 UFO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즉 성경적(biblical)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4)UFO를 추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동기에서 이를 주장하며, 극단적인 UFO 추종자들은 무엇을 하며 사는가? 즉 사회적인(social) 부분이다. 실제로 UFO뿐 아니라 창조과학자가 성경을 변증하는데 있어서 위의 네 가지를 돌려가면서 사용한다. UFO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다루어 볼 것이다.

UFO보았다고 하던데? UFO는 단지 미확인된 비행물체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외계의 지적 존재 즉 외계인(alien)까지 연장되며, 실제로 이 둘은 거의 동일시 사용된다. 미국에서 UFO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다. 1946년 에덤스키라는 사람이 우주의 개척자(Pioneer of Universe)라는 소설을 썼는데, 다음해 184개의 UFO를 목격했다고 증언했었다. 또한 1953년에는 외계인을 직접 만나, 달에도 갔으며 거기에는 울창한 숲과 짐승이 존재했다

고 언급했다. 다행히(!) 그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4년 전인 1965년에 사망하므로 생전에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한 비난을 면했다. 프라이(Daniel Fry)는 1950년대부터 다진동 라디오를 개발해 외계의 신호를 받으려 했으나 아직 접수된 기록이 없다.

외계인 영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1947년 미국 뉴멕시코 주의 로즈웰

(Roswell)이란 도시에서 외계인을 해부하는 필름일 것이다. 그러나 이 흐릿한 필름은 이미 조작된 것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결론이 난 한참 후인 1995년 UFO 세계집회(독일)에서도 주된 인기물이었다. 심지어는 YouTube 등 인터넷에 진위여부의 언급도 없이 등장하며 여전히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1900년에 프랑스의 과학 아카데미는 외계인과 처음 접촉하는 사람에게 십만 프랑을 수여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이 상금은 주인 없는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외계인을 찾는 가장 유명한 기관인 SETI(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캘리포니아, 1984년 등록) 선임 연구가 쇼스택(Seth Shostak)의 언급이 지금까지 외계인의 증거에 대한 현주소라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외계생명체라고 증명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나는 (외계인이 있다는 것에) 낙관적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보았던 별보다 1,000배나 많은 별들을 관찰할 것인데, 그렇다면 외계에서의 신호를 잡아낼 가능성이 높아 진다… 외계 생명체로서부터의 신호가 잡히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뉴스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생각을 모두 뒤집을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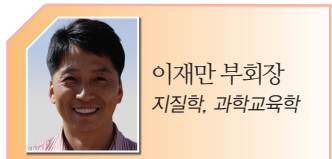
그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단지 외계인이 있다는 자신의 믿음(!)만을 반복했다. 그의 말은 관찰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관찰된다면’이란 말만 반복한다. 외계인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Nothing!”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쇼스택이 2010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죽을 때까지 외계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면?”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면 이런 유언을 남길 것 같긴 하다. ‘지금의 외계인 탐사 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듯하다. 포기하지는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라.’”

분명한 하나의 결론은 UFO는 관찰되었기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UFO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먼저이다. 그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No Evidence(어떤 증거도 없다)!



SETI 상임고문인 Shostak





성경 속의 생물들(9)

가축

도시화 된 현대인들에게 ‘가축’이란 단어는 꽤 생소하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가축은 사람들에게 고기나 우유, 모피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동물들이다. 소, 양, 염소, 돼지, 낙타, 말 등의 가축들은 식용이나 노동력 혹은 운송 수단에 사용되는 동물들이다. 이 밖에도 애완용으로 기르는 가축들도 있는데 개와 고양이가 대표적인 것이다. 넓은 의미의 가축에는 닭이나 오리, 토끼, 칠면조, 메추라기, 꿀벌 누에 등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 가축들은 언제부터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었을까? 진화론적인 세상 정보에 의하면 약 1만 2천년 전 신석기 시대에 최초로 개를 가축화 하였고 이어서 소가 1만년 전 그리고 염소, 양, 돼지는 약 8천년 전, 말은 약 3천년 전에 그리고 칠면조는 16세기 유럽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정보에 따라서 그 순서와 시기가 차이가 있는데 이는 그 기원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주장은 이 동물들이 원래는 야생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가축화’라고 부른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일부 가축은 처음부터 가축으로 창조 되었다. 창조 6일째 하나님은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세기 1:25)라고 가축과 일반 짐승을 구분 하셨다. 또, 아담의 아들 아벨은 이미 양을 쳤으며(창세기 4:2) 가인의 7세 손인 야발은 유목생활 하며 가축을 치는 첫 조상(창세기 4:20) 이라고 기록 되었다. 노아가 방주에 실은 동물에도 가축이 따로 명시되어 있다(창세기 7:13-15; 8:1). 그러므로 모든 가축이 원래는 야생이었는데 사람이 길들인 것이 아니라 어떤 가축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 하신 것이다.

원래 창조 된 모든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적어도 인류의 범죄 사건 전에는 다른 동물들을 잡아 먹지도 않았다(창세기 1:30). 그러나 노아홍수 후에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셨는데 이 때에도 가축만은 예외로 하셨음을 알 수 있다(창세기 9:2). 가축들 중에 소와 양 등 온순한 정한 동물들은 방주에 7 마리씩 태워졌고 방주에서 나온 직후에 그 중 한 마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려졌을 것이다(창세기 8:20).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동물들을 다스릴 권리와 능력을 주셨으므로(창세기 1:26, 28)사람들은 이 가축들 외에도 다른 야생 동물들을 길들일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동물이 개가 아닐까 생각한다. 진화론자들뿐 아니라 많은 창조론자들도 개의 조상으로 방주에서 나온 늑대를 지목한다.

진화론자들은 늑대의 가축화 과정의 핵심을 자주 돌연변이로 해석하려고 한다. 늑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늑대를 사람이 돌보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 사람에게 유익한 특징이 나오면 살려두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시켜버렸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계속하여 현재의 온순한 개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우를 길들인 실험에 의하면 불과 2~3 세대 만에 공격성이 약하고 길들여진 여우가 나타났다(Bioessays, 31 (3): 349-360). 이 실험 결과는 가축화가 오랜 기간의 돌연변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해 있던 유전정보의 재조합 결과로 갑자기 나타난 변이임을 말해주고 있다. 가축화 과정에서는 생식 가능 기간이 길어지거나, 외형이 다양해지거나, 병에 대한 저항성이 약해지기도 하는데 유전정보 재조합 과정에서 정보가 손실되는 현상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최선을 다 해 자기 형상인 사람이 살 지구를 가축까지 빠짐 없이 준비하시며 ‘좋았더라’는 말씀을 연발하셨다. 마침내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기뻐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의 크기를 선명하게 보여 주셨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형용사인 '파이오니아'는 탐사선 이름의 앞부분을 따온 것이다.

2008년 창조과학연구원(ICR)의 험프리(Russell Humphreys) 박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 등장하는 중력에 관한 방정식의 근사해(Metrics)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우주모델을 제시하였다. 지난 해 연속된 칼럼으로 그가 제안한 메트릭을 통하여 공간의 팽창과 시간의 느려짐(팽창)에 대한 새로운 천문 우주 모델을 소개하고 수백만 광년 떨어진 별빛들을 지구에서 어떻게 수천년의 짧은 시간에 볼 수 있게 되었는지 설명하였다.^{1,2}

통상 빅뱅우주론에서는 우주 공간의 팽창이 우주의 한점을 중심으로 시작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의 풍선같은 구체의 표면에 존재하여 별들과 은하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가정한다. 반면 험프리 박사는, 일반 과학자들이 수집한 우주 공간을 통한 별들과 은하들의 위치에 대한 적색편이(Red shift) 연구자료를 통해, 별과 은하들이 우리 은하(밀키웨이 은하)를 중심으로 불연속적인 동심원(quantized concentric shells)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³ 빅뱅이론에는 우주가 어떤 특별한 위치와 유일한 중심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적색편이 자료들은 우주는 중심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NASA과학자들은 태양계를 벗어나 먼 거리(약 20 AU, 1 AU는 지구-태양 거리를)를 향해하는 우주선들이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속도변화를 겪고 있는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1972년과 1973년 NASA는 태양계 밖으로 우주 탐사선 파이오니아 10호와 11호를 각각 발사했다. 그 후 NASA의 과학자들은 목성을 지나고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는 파이오니아 탐사선들과 2003년까지 계속 교신을 하면서 탐사선으로부터 오는 전파를 분석하여 탐사선이 어떻게 향해하는지 그 비

행 궤도를 추적해왔다. 여기서 수수께끼는 탐사선들 모두 다 예상했던 속도보다 훨씬 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파이오니어 10호선과 11호선 모두 다 거의 같은 비율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best estimate acceleration: $-8.74 \times 10^{-10} \text{m/s}^2$).

1980년 처음 JPL 연구소 앤더슨(John Anderson) 연구원이 이 현상을 발견한 후 탐사선들이 '태양 이외에 또 다른 여분의 인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알지 못하는 우주 개스와 의 마찰 때문일까? 혹시 연료의 누설 때문은 아닐까? 내장된 배터리로부터의 열방출 때문일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소행성으로 인한 인력 때문일까?' 등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보았지만 그 원인을 확실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5년간 이 문제를 다뤄 온 앤더슨 박사를 비롯해 여러 과학자들은 뉴턴의 중력법칙을 초월하는 이례적인 현상(Pioneer effect)으로 보고 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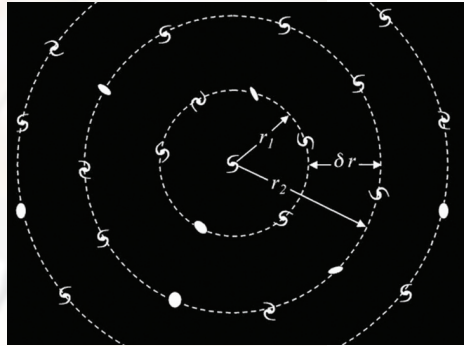
태양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는 파니오니 아호를 비롯한 보이저 우주선들이 왜 점점 더 느려지고 있을까?

이 미스터리리는 험프리 박사의 새로운 우주모델로 명료하게 설명이 된다. 그의 모델에 따르면, 하나의 거대한 공간에 물질이 분포하고 있다면 그 공간의 중심에는 깊은 중력포텐셜 우물(gravitational potential well)이 존재하게 된다. (중력포텐셜이란, 중력장 임의의 한 지점에서 단위 질량이 가지는 에너지이다). 만일 그 우주 공간을 밖으로 당겨서 확장시켜 나간다면 그 중력포텐셜 우물의 깊이는 짧아진다. 이때 우물 안에 있는 레이더로 측정하면, 그 우물의 깊이가 계속해서 짧아지기 때문에 같은 우주선이 같은 시간에 예상보다 더 짧은 거리를 가게 되어 속도가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만일 태양계가 중심을 가지고 있고 그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면 태양계의 중력포텐셜 우물의 깊이가 짧아지는 가속(deceleration)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태양계를 벗어나 멀리 항해하는 우주선들이 계속 속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자명해 진다.

파이오니아 효과는 우주가 과거 한 때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파아오니아 효과는 창조과학자들이 주장하는 1) 우주에 중심이 있고, 2) 우주공간이 팽창하고 있으며, 3) 시간의 느려짐(팽창)을 지지하고 있으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 요소들을 증거해주고 있다. 반면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는 빅뱅이론 지지자들에게 파니오니아 효과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일 뿐이다.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배열 된 우주 모형



[참고]

1. 창조과학선교회 뉴스레터 2011, Creation Truth, Vol.19, No. 2-7.
2. Humphreys, D.R. 2008, New time dilation helps creation cosmology, Journal of Creation, 22(3): 84-92.
3. Humphreys, D.R. 2002, Our galaxy is the center of the universe, "Quantized" red shifts show, Journal of Creation, 16(2):95-104.
4. Anderson, J.D. et al. 2002, Study of the anomalous acceleration of Pioneer 10 and 11, Physical Review D65: 082004-1 to 082004-50.



이동용 박사
항공기계공학



젊은 우주의 증거들

나선형 은하

달의 퇴행

지구의 유일한 위성인 달은 지구로부터 서서히 멀어져 간다. 달이 지구를 공전할 때 달의 중력은 지구의 대양을 끌어 당겨 밀물과 썰물을 일으킨다. 그 조수가 실제로 달 쪽으로 당겨져서 점차 달의 공전궤도가 나선의 바깥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따라서 달은 매년 약 40 밀리미터(1.6인치)씩 지구로부터 멀어진다. 이 사실은 달이 과거에는 지구에 더 가까웠음을 말해 준다.

가령 6000년 전에 달은 지구에 약 240미터 (800 피트) 더 가까이 있었을 것이다. 이는 현재 달이 약 40만 킬로미터(25만 마일) 떨어져 있는 거리에 비하면 큰 변화는 아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시간대에서는 이 사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구와 달이 45억년 이상이 되었다면 큰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단지 14억년 전에는 달과 지구가 서로 붙어 있어야 한다. 이는 세상 천문학자들이 주장하는 나이가 터무니 없음을 시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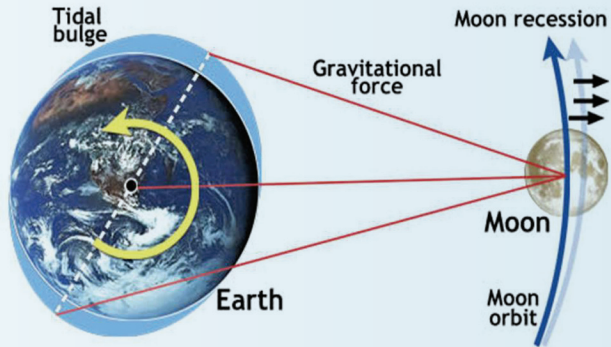
빅뱅을 믿는 천문학자들은 또 다른 이유를 내세워 해답을 유보한다. 가령 달이 과거에는 더욱 천천히 멀어져 갔을 것이라는 가정 말이다. 그러나 이는 수십억 년 되었다는 모델을 살리려는 구차한 가정일 뿐이다. 가장 명료한 설명은 달이 이처럼 오랫동안 공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달의 퇴행은 젊은 나이를 지지하지만 수십억 년의 믿음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행성의 자장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은 강한 자장을 가지고 있다. 전류에 기인된 이 자장은 시간과 더불어 감소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구 자장의 감소율을 측정한 데이터는 자장의 세기가 매년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행성들이 정말 수십억 년이 되었다면 그들의 자장은 오늘날 매우 약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특별히 태양계의 외행성들은 상당히 강한 자장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한 합당한 설명은 성경의 가르침 대로 이 행성들의 나이가 단지 수천년 되었다는 것이다.

나선형 은하계

은하계는 별들과 또 별들 사이에 존재하는 가스와 먼지의 거대한 집합체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는 밀키웨이(Milky Way)라 하는데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은하 내에 있다고 추정된다. 다른 많은 은하들은 둥근 형이거나 타원형의 모양들이지만 각기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가장 아름다운 은하계 중에는 우리 밀키웨이 은하처럼 나선형들이 있다. 나선형 은하들은 천천히 돌지만 나선형의 내부는 외각보다 더 빠르게 회전한다. 이것은 나선형 은하들이 계속 감기게 되어 더욱 촘촘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백만 년 동안 계속 은하계가 감기게 되었다면 나선형의 구조는 더 이상 인식될 수 없어야 한다. 빅뱅이론에 따르는 연대를 적용한다면 나선은하를 볼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나선 은하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나선 은하들은 성경의 년대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수십억 년을 믿는 빅뱅 이론에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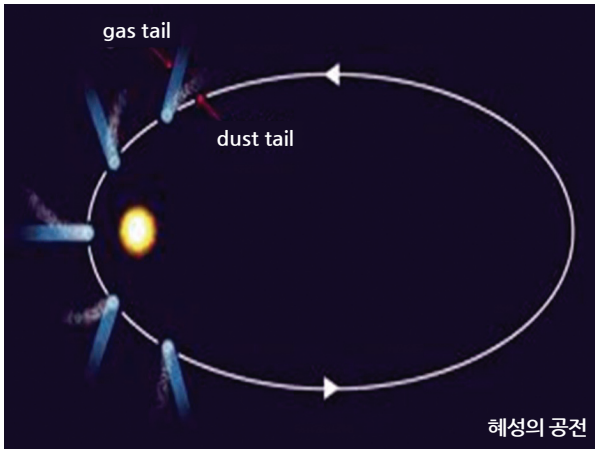
조수팽창에 의한 달의 퇴행

혜성들

혜성은 얼음과 먼지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혜성들은 타원 궤도로 태양을 돌며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오랜 시간을 보내지만 때때로 태양에 매우 가까이 근접하기도 한다. 태양에 근접할 때는 태양의 복사열로 녹아버리게 되어 일부 얼음물질을 잃게 된다. 결과적으로 혜성들은 물질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껏해야 10만년 내외) 태양의 궤도를 돌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수 많은

혜성들이 있으며 이는 태양계가 10만년 보다는 훨씬 젊다는 암시이다. 즉 성경의 역사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세상 천문학자들은 태양계가 45억 년의 나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혜성이 그렇게 오래 보존될 수 없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사라진 혜성들을 대신할 새로운 혜성들이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오르트구름(Oort cloud: 역자 주: 명왕성의 궤도 밖 먼 곳에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가상의 구름이다. 이 구름은 혜성들의 거대한 집합체로 이곳에서 혜성들이 생겨나는 것으로 주장함)이다. 이 오르트구름은 태양으로부터 매우 먼 거리에 있는 얼음 물질들의 저장탱크와 같다고 하겠다. 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때때로 얼음 물질이 떨어져나가 새로운 혜성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가 없는 단지 상상의 산물이다. 성경의 창세기에 설명된 창조를 받아드리면 이 상상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 혜성들은 태양계가 젊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초자연적인 창조

우주 나이와는 별도로 성

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주가 초자연적으로 창조되었다는 증거들이 있다. 이 증거들은 빅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를 지지한다. 예를 들어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밖의 행성들을 발견해 왔다. 이들은 태양의 궤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원거리 별들의 궤도를 운행하는 행성들이다. 이 행성들이 직접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그들이 선회하는 별로부터 생기는 중력의 견인력(gravitational tug)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탐지된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되는 원리들은 모두 실험과학에서 유효한 것들이다. 즉 실험실에서 반복 실험이 가능한 실험과학으로 탐지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진정한 실제 행성들이라 믿는다.

이 태양계 밖에 존재하는 행성들이 태양계 기원에 대한 빅뱅의 진화론적 모델에 큰 문제가 된다. 세상 천문학자들은 소형 행성들은 그들의 별에 근접하여 형성되고 대형 행성(목성과 토성 같은)들은 원거리에 형성되는 것으로 또 다른 태양계들이 우리의 태양계와 유사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많은 초행성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목성 크기의 대형 행성들이 자신의 별에 근접한 궤도를 돌고 있다. 이 사실들이 태양계 기원에 대한 진화모델의 큰 문제점이 되지만 성서적 창조모델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수 없이 다양한 태양계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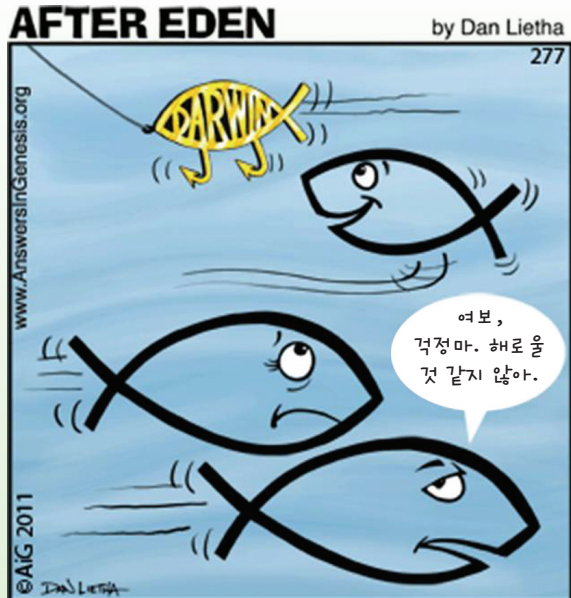
우리는 앞에서 성경이 천문학의 화제를 이끌 때 모든 관점에서 정확함을 보았다. 이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하신 일을 나타내 도다”라고 가르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우주의 모든 것들을 아시며 그는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 사실들을 이해하는데 정확한 기초를 제공해 준다. 동시에 성경은 물리적인 우주에 대한 정보 이상의 것들을 제공해 준다. 또한 성경은 삶의 가장 심오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준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리고 사후에는 어떻게 되나?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왜 죽음이 왔으며 왜 고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준다(www.AnswersInGenesis.org/curse 참고).

우리는 성경이 오랜 세대에 걸쳐서 정확무오함이 입증되어 왔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진실임을 확신한다. 진실한 과학이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확인해 주는지 우리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들이 학교와 대중 매체를 통해서 당면하는 진화론적인 공격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Dr. Jason Lisle/ Answers in Genesis의 강사
출처: War of the worldviews

이미
잡혔다.



한국 NCD 탐사여행

9/19 - 9/21/2011

와서 보고 배워야 한다. 창조를 보고, 창세기가 진리임을 보고 배운 귀한 시간이었다.

- 이윤호 목사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성경말씀에 있는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증거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현재 신학생들과 또 대학생들에게 최 박사님을 통하여 들은 내용을 잘 전달하렵니다. -이강호 목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려 드립니다. -김태희 집사/
한국의 풀포츠

정말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진리를 새롭게 깨달았다. 목사의 사역에 큰 힘과 능력의 기회가 되었다. -장덕만 목사

믿음을 주셨기에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이번 여정을 통해 말씀이 사실인 증거들을 볼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다. - 김원희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인하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또다시 새롭게 새겨지는 여정이었어요. 작은 우리, 그러나 우리안에 계신 큰 성령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 김택훈

노아의 홍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성경에서 알지 못했던 지층세계를 알게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목사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창조과학을 통한 그랜드 캐년 여행에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마지막 날, 강의가 정말 마음에 와 닿았고 모든 것이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 이인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는 진리임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음을 제가 있는 현장에서 담대하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불신자들이 창조과학 탐사여행에 참여해서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볼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 박성진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것, 믿는다는 것은 행복한 삶이죠. 전에는 그랜드 캐년

을 멋있고 아름답다는 것만 생각했지만 이번은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 Esther T S Nam

이번 친구와 회갑여행 중에 창조과학팀에 합류하고 ... 확실한 건 진화론은 거짓이란 것, 하나님의 창조만이 진실이고 제가 믿어온 것이 다 진실이란 것.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다지며 값진 여행이었음을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 이정옥

진화론을 믿었던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완전히 믿게 되고 ... 열심히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조재실

하나님의 창조물로 알았던 그랜드캐년이 심판의 흔적임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정동원

단편적으로만 알던 지식들이 하나로 엮이게 되면서 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심판의 결과가 이 정도라면 하늘나라는 얼마나 좋을까라는 말씀. 정말 와 닿았습니다. - 박창성

창조과학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평소에 창세기 말씀을 믿으면서도 의심이 있는 부분이 있었으나 ... 의심없이 굳게 믿을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조창호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다시금 천지창조의 귀함을 알게 하심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강수경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쳤던 창조의 비밀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되고 더욱 확신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수 있을것 같습니다. -안임숙

정말 유익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공부하고, 이전에 잘못알고 있던 지식을 바른 지식으로 배우고 감을 감사드립니다. -이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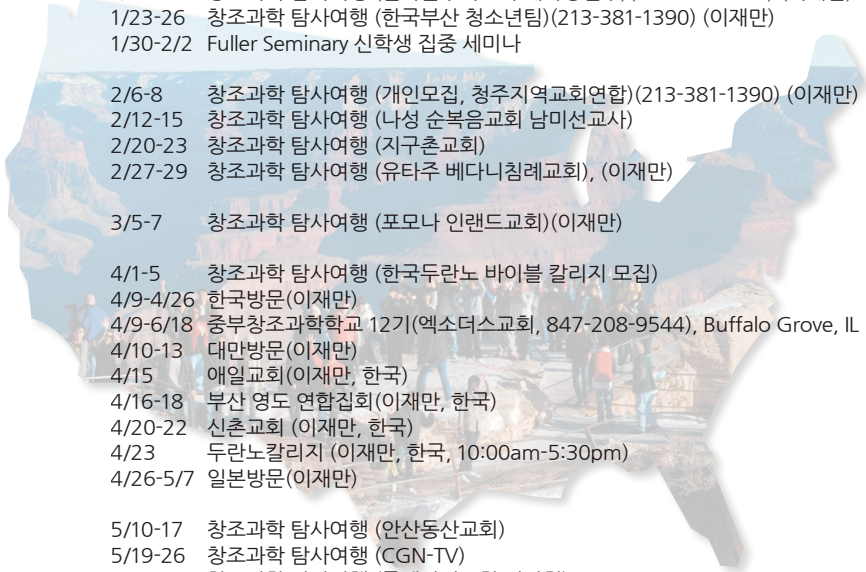
정말로 알고 싶었던 많은 진실을 토는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되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돌아가서 아는 자들에게 본 학회를 소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필요하고 해야 할 거룩한 “창조과학선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서석규 목사

정말로 귀한 것을 알게 된 것에 감사드리며 많은 설교자료를 가지고 갑니다. 알찬 여행 감사 드리며 그랜드캐년의 경이로움, 아름다움이 창조의 섭리라고 생각하니 더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모든것이... 할렐루야. -한자성 목사

하나님의 크신 비밀한 경륜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진화론이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창조론을 어떻게 주장하고 펼쳐야 할지... 앞으로의 당면 과제를 마음에 안고 갑니다. -배중훈 목사

● 편집되지 않은 더 많은 간증은 웹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2년 ACT Schedule

- 
- 1/2-4 창조과학 탐사여행 (13차 유학생, 213-381-1390)
 - 1/11-14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 청소년)(213-381-1390) (이재만)
 - 1/16-20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213-381-1390) (이재만)
 - 1/23-26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부산 청소년팀)(213-381-1390) (이재만)
 - 1/30-2/2 Fuller Seminary 신학생 집중 세미나
 - 2/6-8 창조과학 탐사여행 (개인모집, 청주지역교회연합)(213-381-1390) (이재만)
 - 2/12-15 창조과학 탐사여행 (나성 순복음교회 남미선교사)
 - 2/20-23 창조과학 탐사여행 (지구촌교회)
 - 2/27-29 창조과학 탐사여행 (유타주 베다니침례교회), (이재만)
 - 3/5-7 창조과학 탐사여행 (포모나 인랜드교회)(이재만)
 - 4/1-5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모집)
 - 4/9-4/26 한국방문(이재만)
 - 4/9-6/18 중부창조과학학교 12기(엑소더스교회, 847-208-9544), Buffalo Grove, IL
 - 4/10-13 대만방문(이재만)
 - 4/15 애일교회(이재만, 한국)
 - 4/16-18 부산 영도 연합집회(이재만, 한국)
 - 4/20-22 신촌교회 (이재만, 한국)
 - 4/23 두란노칼리지 (이재만, 한국, 10:00am-5:30pm)
 - 4/26-5/7 일본방문(이재만)
 - 5/10-17 창조과학 탐사여행 (안산동산교회)
 - 5/19-26 창조과학 탐사여행 (CGN-TV)
 - 5/22-24 창조과학 탐사여행 (국제가정교회 이사회)
 - 5/26 순회선교단 (최우성)
 - 5/26-28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
 - 6/4-7 창조과학 탐사여행 (시애틀 형제교회)
 - 6/18-20 창조과학 탐사여행 (4차 Fuller 신학생, 213-381-1390)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43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90015
Tel. 213-381-1390 Fax 213-381-9242 www.HisArk.com / hisark@gmail.com